

제 149 호

연중 제 27주일

1975. 10. 5.

#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주교 사목 교서□

□1975년도 가을□

## 봉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일찍이 토마스·아·캠퍼스는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친사들을 즐겁게 하며, 교회를 건설하고, 산 이를 도우며, 죽은 이를 평안히 쉬게 한다”(준수성범 4권 5장)고 말했습니다.

미사란 「갈바리아의 제사를 피흘림이 없이 새롭게 하는 봉헌 제사」로서, 마치 잊어른에게 예물을 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용서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봉헌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속죄와 은총을 비는 최고의 경신례입니다.

미사성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제사임을, 우리는 특히 미사 전례 중 봉헌 예식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미사에 나올 때, 자기 형편대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미사중에 이를 봉헌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미사에 쓰이고, 나머지 일부는 교회 유지와 사제 생활비에 쓰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분량도 많아지고 취급하기도 곤란함으로 차차 돈으로 드리게 되었고, 8세기부터는 신자들이 미사를 청할 때 예물도 함께 바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주일헌금과 미사 예물, 나아가서는 봉헌금(교무금)의 기원입니다.

이런 헌금은 물론 미사 성제의 값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제의 생활을 돕고자 하는 신자들의 정성 어린 성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 토마스는 “사제는 성제 축성의 값으로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 생활을 위하여 이를 받는 것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일단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되고 그것이 가난한 이들의 구제와 사제들의 생활, 그리고 교회 운영과 포교 활동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제물로서, 자기생활의 일부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와 합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따라서 그 정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물인 성체와 성혈에 더욱 깊이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빈민 구제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제지변이나 전화를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 수 있는 것도, 바로 신자들의 헌금이 있기 에 가능한 것이며, 많은 성당과 학교 그리고 병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것도, 헌금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의 일부를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바치는 것은, 결코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풍습을 보아도, “농토에서 나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등 소출의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봉헌 될 바”(레위기 27.30)라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브람도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벨키세렉에게 바쳤다”(창세기 14.20)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의당히 하나님께 돌려드렸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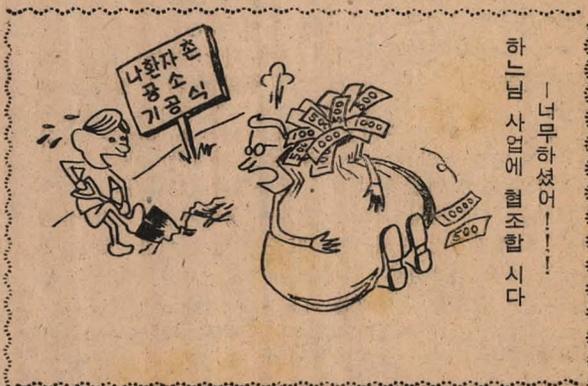
교회는 모든신자들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 힘으로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 운영과 사업, 그리고 특히 **섬직자의 생활**을 자기 힘 닿는 데까지 보조하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봉사예 몸을 바치고 있다. 따라서 사제가 알맞는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루가 10.7)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다.”(고린도전 9.14) 그러므로 사제에게 공정한 보수가 달리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자들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 사제는 신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므로, 그가 정당하고 알맞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원조를 그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자들의 참된 의무이다.

(2면으로 계속)

## 순정이 산책



## (2) 순정 이

(1번에서 계속)

한편, 주교는 이 의무에 대하여 신자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으며, 또한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사제들에게 대하여 알맞는 생활을 보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보수는 사제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사제에게 부여하는 정도여야 한다. 교회는 이미 그 창설 시대부터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직무를 크게 존중해 왔다.

또 이 보수는 사제가 매년 당연하고 충분한 휴가를 취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사제교령 20)

여기서 우리는, 헌금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살피고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자오를 새롭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831년 파리 외방 전교회에 의해 창설된 이래, 근 150년 동안을 외방 교회들과 교황청의 보조로 유지 운영되는, 이른바 「포교지방 교회」 즉 「받는 교회」로 머물러 있었습다. 그러나 1962년에 「정식 교구 교회」로 승격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교회까지 도와야 하는 「주는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는 교회는 커녕, 받는 교회로써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천주 교구 만 해도 이미 1931년에 영예롭게도 한국의 첫 「자치 교구」로 지정되었음을 자랑하지만, 아직 까지도 교구 운영의 완전 자립이란 요원한 상태이어서, 지난해 만 해도 교구 운영비의 43%를 교황청 보조로 충당했으며, 나머지 57%만을 겨우 교구 신자들의 힘으로 보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립 못하는 본당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유지마저 급급한 각 본당과, 이중 부담으로 시달리는 6만의 신자들이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실로 목자로서 마음 아프고 무거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갈려나간 형제들은 어려움 중에도 심의를 철저히 실시한다는 말을 들을 때, 실로 그들의 그 생활한 실천 신앙 앞에는 말끄러움과 부러운 마음을 또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교회를 세운 순교 선열들의 후손입니다. 피로써 세운 교회를 우리는 적어도 땅이라도 흘러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때마침 우리는 풍요한 결실의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도 지루했던 지난 여름 동안, 구슬땀을 흘려 얻은 수확이기에 우리는 더욱 소중함과 아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교마우신 하느님이 시기에, 우리는 더 더욱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은혜라면 주는 것은 감사이며, 그것은 또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가져 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발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느님께 더욱 신뢰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봉헌금(교무금) 헌납에 최대의 정성을 다 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자치교구인으로써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굳게 다짐합시다.

끝으로 미사 예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사제를 통하여 봉헌되는 미사 성제가 바로 십자가상 성제이며, 인류 구원을 위한 참된 제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요한 것인지도 어느정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풍요한 미사의 은혜를 우리는 제관인 사제를 통하여 얻어 입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사의 풍요한 은혜를 입으며 또한 사제를 돕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제를 통하여 거룩한 미사를 자주, 그리고 후하게 봉헌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제의 본직이요, 또한 신자를 위하여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의 사망을 당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의 기일을 맞이할 때, 제일 먼저 미사를 봉헌하며 그들을 돕고 있는지? 추석, 설, 영명축일, 생일, 회갑, 결혼 등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역시 미사를 봉헌하며 기념하고 경축하는지? 그밖에 입학, 졸업, 취직 그리고 실직 우환, 재난 등 기쁜 일 뿐 아니라, 불우한 일을 당할 때, 역시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구의 미사 봉헌 통계를 보면, 총신자 56,876명에 약 만 세대의 신자 가정에서 봉헌한 미사 대수는 4,896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분석하면 두 세대당 미사 한 대를 봉헌한 셈으로써, 한 가정에서는 2년이 걸려야 겨우 미사 한 대를 봉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주교 신자 가정에서는 제사(일반 외교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봉헌 때나 기일이 되어서, 죽은 부모나 조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차례도 갖추지 않고, 그저 지내는 막심한 불효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훌륭한 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헛되히 하는, 오히려 외교인만도 못한 불충한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스스로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그만큼 모든 면에서 더욱 모범이 되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 우리 신자들이 크게 명심해야 할 일은, 우리 교구의 신부 58명이 연간 드려야 할 최소한의 소요 미사 대수는 만 7천대로써, 만 2천대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해마다 외국미사를 약간씩(작년에는 3,141대) 얻어 오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형편이니, 크게 염려되는 것입니다. 오죽해야 이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교구에서는 1972년부터 교구 전체 신부님들이 자기 신자로 부터 받은 미사 예물의 1/3을 반듯이 교구에 바쳐, 그것으로 미사가 없거나 부족한 신부님들도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바치는 미사가 너무 부족한 때문인지 최근에 와서는 그 실시 성적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지난 4년 동안에 무려 5,944,697원에 달하는 11,889대의 교구 미사가 만들어져,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 실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6만 신자를 가진 소위 자치 교구 사제들이 외국 신자로 부터 봉헌된 남의 미사를, 자기 신자 앞에서 지낸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자치교구의 6만 신자로써, 불과 58명의 교구 신부님들이 서로 나누어 만든 1/3미사를 드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는, 1년에 적어도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워령 미사 한 대 이상을,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이를 위하여 생 미사 한 대 이상을 반듯히 봉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고린토전 3.23)

1975년 10월 1일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 재 덕 주교

□군인 주일□

군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구 군중 신부님들의 현황과 군중 후원회에 대해서 알아 본다.

※군중 신부님들※

성명	본명	계신곳	계급
고경훈	방지거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상리 천주교	소령
성민호	야고버	서울 관악구 대방동 공군본부 756-1	소령
서용복	도마	진해시 여좌 1가	대위
이수현	보나베투라	영천군 영천읍 고촌동 207-9	소령
김병운	분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군인관사	소령

※군중 후원회※

군중 후원회는 장병들에게, 부모 형제들의 고마움을 전하며, 영원한 안식처를 가르쳐 주며, 강한 정신 무장을 심어 주려고 발족한 것입니다.

군중 후원회는 197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군중 신부단의 활동을 돕는 한편, 평신도 사도적의 한 일익으로써 주님 사업인 군 전교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근 5년 동안 총 3,300여만원 규모의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군 영세자를 위한 지원에 힘입은 군중 신부단은 금년 8월 15일 현재 15,933명의 장병을 입교 시켰으며, 군에 기증된 서적도 많습니다. 이 성과를 위해 뒷바라지해 주신 군중 후원회의 회원은 3,458명으로 매월 회비의 성금을 꼬박꼬박 내 보내 주셨습니다.

이 가룩한 정성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로서의 전방에 공산군을 대치하고 있다는 위험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교구가 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속에 가톨릭의 신자로서의 본분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인 장병들에게 몸소 실천함으로써 자기 성화의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십이 (115) 



※ 이 주일의 미사 ※

- 제 1 독서 (이사야 5장 1절-7절)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가문이다.
- 제 2 독서 (필립비 4장 6절-9절 성경 P 454)  
이렇게 하면 평화의 하느님이 함께 계시리라.
- 복음 (마태오 21장 33절-43절 성경 P 51)  
당신 포도원은 다른 농부에게 도지로 주었다.  
□신자들의 기도  
1, 여덟번째 군인 주일을 맞아 주께 비오니, 국군 장

병들을 굶어 살피시어, 국토 방위의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깨닫고, 국가가 민족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군 생활에 성실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로사리오 성월을 맞이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심히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라」 하시는 성모님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묵주의 기도를 정성껏 드리게 비추어주소서. ◎  
3. 죽은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주께 비오니,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당신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서울 인류기술자 초빙 개업※

A 원 양 복 점

교우 여러분에게는 인하 봉사

정음 군청에서 성립극장 쪽으로  
전화 998  
황재평 (베드루)

※ 축 결 혼 ※

김종기씨 장남  
별주 (안포니오) 군과  
양판금씨 장녀  
영자 (메레사) 양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부디 오  
시어 축복해 주십시오.

일시 : 1975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 전동 천주교회  
주례 : 김 환 천 신부님

□개업인사□

여러분의 전자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종합 전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 따뜻한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환 (원선시오) 아람
- 취급품... T.V, 냉장고, 전기밥솥  
발동, 전기장판 등
- 위치... 팔달로변 이외과 남쪽 10m  
(@3332)



1. 주교 사목 교서 발표 : 금번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재덕 주교님은 "미사예물, 주일헌금, 교무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봉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라는 특별 교서를 발표하면서 각 성당과 공소에서 이를 낭독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널리 주지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2.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1975. 10. 6일  
오전 11시 가톨릭센터에서 신, 구교 합동인 월요 기도회에 많은 뜻있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3. 레지오 마리에 연수회 : 75년 10월 10일 <토> 가톨릭 센터에서  
\* 오늘은 군인 주일. : 75년 10월 5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군장병들을 위하여 특별 헌금이 있어오니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4. 메아리 합창단 76년도 정기총회와 아울러 신입 회장, 부회장 선거를 실시 하였습니다.  
회장 : 김 태우 부회장 : 손 귀상, 창 복남.

(중양)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②3874 보좌 신부 김 등 준  
          사도 회장 이 상 동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푸리아 월례회 : 다음주
3. 금주 마당 포장에 회사하신 분 : 임순례 20,000원  
임주택 박찬훈 : 각 10,000원, 송근형 5,000원  
김한영 3,000원, 이후덕 2,000원, 오중문 1,500원  
조순이 김철 김집근 김베드루 박봉익 조순용 각 1,000원, 정복순 정희두 조정혜 임명애 윤관용 이원오 각 500원, 이옥보 장레나 송승례 박봉규 각 200원  
합계 : 61,300원, 누계 : 111,300원
4. 애령회 소식 : 김 용우(암브로시오)님 5,000원 회사 중앙 농화학사 박 찬훈씨께서 의산 나환자촌 공소 신축비로 100,000원 회사(외인) 감사합니다.
5. 76년도 새임원 : <사도회장> 이 상동 <부회장> 김병구 <조정래> <선교> 장재희 <전례> 이기호 <봉사> 김순성, <재경> 이상진 <교문> 김종순 이복석 천건 엄경숙 오재희 이기성 이상범

3. 반 미사 : 오후 7시 30분  
<6일> 금암 4반 최덕례씨며,  
<10일> 금암 5반 유제상씨며
4. 신용조합 임원회 : 공식 미사후, <월례회> 다음주
5. 성가대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수녀님 지도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에 많은 기도와 협조 감사드립니다
2. 사도회 : 전중근, 최용구, 김성원, 김종술, 이상기, 이복주
3. 교무금 완납 요망  
\* 미사에 나오신분 (남)91명, (여)313명, <계>404명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오늘은 애령회 주일 : (특별 헌금 있음)
2. 지난주 사도회 총회를 하였기에 이번주 사도회 없음
3. 다음주 상관 사도회, 애령회 있음
4. 지난주 사도회 총회후 치명 묘지에 우천 관계로 참배 못했기에 오늘 오후 3시 참배
5. 미사 시간 변경 <저녁> 7시 30분(오후)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한 봉 섭  
          사도 회장 양 윤 모

1. 사도회 상임 위원회  
각 위원장, 부 위원장 저녁 7시 미사후 본당 사무실
2. 중, 고, 아동 미사 시간 변경 <중, 고> 토 오후 4시 <아동> 주일 오후 2시
3. 유아 세례 : 주일 오후 2시 미사후
4. 사도회 사무실 이전 : 구 사제관으로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령

1. 사도회 및 성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 다음주
3.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전동> 이영문 10,000원, 본당 학생회 9,000원, 박원양 5,000원, 박태수 4,000원,  
주계 : 28,000원, 누계 : 4,107,627원  
◎ 신축 성미 주계 : 5되 누계 : 230.5되

(덕진)

전화 ③ 24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사도회 총회 : 공식 미사후
2. 미사 시간 변경 <토, 일> 오후 7시 30분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수 신부	창제 안류인음	3,78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등	새로운 봉헌금 봉투사용 바람	42,035원
		사도회 정기 총회	20,130원			전임 회장 및 구역 회장 표창장 수여	37,820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원			전전 대상자 교리 참석 바람	5,165원
제 2 지구	대 윤명중 합	성모회	2,390원	제 4 지구	중 앙동 노송동 서학동 전	사도회 월례회	63,311원
		복자 회의	3,475원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20,870원
		사목 협의회 장소변경	13,220원			사도회 총회	14,205원
제 3 지구	고 금여	복자회	3,475원	제 5 지구	남부순임장 전	사도회 고문들의 많은협력 바랍니다	19,695원
		사도회 성심회 학생회	38,945원			상관 사도회 애령회	16,745원
		사도회 총회	13,230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55,170원
		유아 세례	16,385원			깔매의 모후 푸리아회	11,555원
		산산산	4,010원			사도회 임원	3,400원
		신용 조합 월례회	11,125원			새 사도 임원 들의 은총 받습니다	5,000원
		사도회 임시 총회	원				